

研究論文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박 환*

I. 서언	IV. 화수리 항쟁의 내용
II. 화수리 항쟁의 배경	V. 화수리 탄압
III. 화수리 항쟁의 주도세력	VI. 화수리 항쟁의 역사적 성격

I. 서언

화성(당시는 수원군)지역에서는 1919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송산면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일본 순사 노구찌(野口廣三)를 처단하는 등 투쟁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아울러 3월 31일 발안 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으며, 이때에는 만세운동을 주도하던 주민이 피살되어 주민들의 흥분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동년 4월 2일에는 주변 14개소의 산에서 봉화 횃불 시위가 전개되어 화성일대는 만세운동의 열기로 가득찼다.¹⁾

이러한 시기인 4월 3일 오후 5시경 우정면, 장안면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정면 화수리에서 일본 주재소를 파괴 전소하는 한편, 일본 순사 가와바다(川端豊太郎)를 처단하는 격렬한 항쟁이 전개되었다. 이 화수리 3.1항쟁은 다수의 대중이 참여한 만세운동이었다. 당시 이들 두 면의 호수가 약 2천 여 호인 점을

* 수원대학교 교수, 한국사 전공

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0(1994), 56쪽, 김교철 조사

감안한다면 각 집마다 1인씩의 장정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장안면사무소, 우정면사무소를 파괴 방화한 후 일본 치안의 상징인 주재소를 파괴 방화하는 한편 일본 순사를 죽인 대표적인 항쟁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는 이 사건을 단순 소요사건이 아닌 내란죄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하였던 것이다.²⁾ 또한 화수리, 수촌리를 비롯하여 우정, 장안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車喜植, 李永釗 등이 징역 15 년에 처해지는 등 20여명이 실행에 처해졌으며 장안면의 경우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수촌리 33호, 석포리 2호, 독정리 2호, 기린리 12호, 사곡리 1호 등 총 50호 우정면의 경우 조암리 10호, 한각리 1호, 화수리 19호 등 총 30호가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화수리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하여 별로 주목하지 못하였다. 화성지역의 3.1운동의 경우 제암리 학살사건 등 주민의 피해 현장에 주로 주목하였기 때문이었다.⁴⁾ 그런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정, 장안지역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심문조서가 간행된 이후⁵⁾ 이정은이 우정면, 장안면 지역의 만세운동을 개척적으로 다루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화성의 우정, 장안지역이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이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석포리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간척사업에도 별로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 화수리에 설치된 주재소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도세력의 경우 천도교적 시각이 강한 김선진의 책에 의존한 결과⁷⁾ 운동의 주도세력이 수촌리의 백낙열을 중심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1972) 재판기록 내란죄 등 참고

3) 姜德相, 『현대사자료-조선』 2, 3.1운동편(1967), 312~313 쪽

4)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왕도출판사 1981).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미래출판사, 198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특집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 연구회(2001).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21(1994~1995).

6)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1995).

7)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미래출판사, 1983).

으로 한 천도교세력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 결과 운동의 주도세력인 석포리의 차병한, 주곡리의 차희식 등 주모, 행동집단 특히 전통적인 유교세력의 참여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기독교, 천주교세력에 대하여도 등한시하였다. 또한 화수리행쟁의 결과 화수리 등지의 피해에 대하여도 심문조서에만 주로 의존한 결과 피해현황에 대한 선교사 등의 보고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정면 화수리 지역의 3.1항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배경으로서 우정, 장안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배경, 주재소의 설치와 주민의 대응, 간척사업의 실시와 주민들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이 곧 화수리 지역에서 3.1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화수리 항쟁의 주도세력과 항쟁의 내용,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도 검토할 것이다

II. 화수리 항쟁의 배경

1. 우정·장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

우정면은 고려시대에는 雙阜縣이라고 했고, 조선말기에는 三槐7면이라고 하여 本面, 馬井, 八羅串, 鴨長, 禾方面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우정면, 압정면 등으로 행정구역상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10년 남양군에 편입되면서 조암 북쪽을 우정면, 조암 남쪽을 압정면으로 구획하였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우정면과 압정면 일원을 병합하여 우정면으로 개칭하였다.⁸⁾

장안면은 고려시대에 쌍부현이라고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남양부로 편입되었다가 숙종 13년(1687) 남양군 草長面과 장안면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부터 한말에 걸쳐서 초장면과 장안면으로 분리 개칭되었다가 1914년 군면 폐합 때 장안면으로 되면서 수원군에 속하였다.⁹⁾

8)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1990), 7쪽

9) 『화성군사』, 7쪽

우정면과 장안면에는 산들이 별로 없는 편이다. 우정면 조암리에 쌍봉산(117.4미터), 우정면 이화리에 寶金山(60.5), 우정면 화산리에 봉화산(61.3), 장안면 사랑리에 소남산(107.2미터) 등이다.¹⁰⁾

1929년에 간행된 『생활상태조사 其一 수원군』편에는 수원군에는 21개면과 277개리가 있다. 그 중 1925년 말 현재 장안면은 총 922호이며, 각 리별로 보면, 덕다리 59, 사랑리 71, 사곡리 163, 노진리 84, 어은리 111, 금의리 70, 석포리 136, 수촌리 120, 독정리 150, 장안리 121 호등이다. 우정면은 총 1,468호이며, 원안리 105, 호곡리 102, 운평리 138, 한각리 74, 떡우리 120, 화수리 166, 주곡리 77, 이화리 144, 석천리 136, 매향리 125, 화산리 134, 조암리 147호 등이다. ¹¹⁾

한편 1922년 당시 화성일대에서 가장 많은 농업 호수를 가진 곳은 송산면이다.(1,443호) 다음이 우정면(1,393호), 안용면(1,374호), 음덕면(1,356호), 반월면(1,354호) 등이다. 우정면의 경우 총 농가수 1,393호 가운데 전업농가가 1,064. 겸업농가가 329호이다. 그 가운데 한국인 지주는 없으며 일본인 지주는 29호, 자작 86호, 자작겸 소작이 580호, 소작이 698호이다. 장안면의 경우 총 988호 가운데 전업농가가 715호, 겸업이 273호이다. 그 중 지주는 일본인 18호, 자작 59호, 자작 겸 소작 418호, 소작 493호 등이다. 화성시 일대 중 일본인 지주만 있는 곳은 봉담면(35호), 마도면(41), 서신면(24), 장안, 우정, 향남면(30호), 성호면(30호) 등이다.¹²⁾ 이로서 볼 때 화성지역에는 일본인지주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성군에는 큰 항구로는 남양지역의 장덕, 송산의 마산포, 서신의 용두, 우정의 주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정면에는 소규모 어항들이 다수 있다. 주곡, 화산, 매향 2리, 고온포, 석천, 국화, 원안 등이 그것들이다¹³⁾

1911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당시 수원에는 城內場4일 개시, 성외장(9일 개시), 오산장(3.8일 개시), 발안장(5.10일 개시), 안중장(1.6일 개시) 등 5개의 장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오산장이 번성하였다 수원의 장시는

10) 『화성군사』, 18~19쪽

11) 조선총독부, 『생활실태조사보고서』 其一, 수원군편(1929), 82~83쪽

12) 酒井政之助, 『水原』(1923), 26~27쪽

13) 『화성군사』, 447쪽

津浦에 내박하는 다른 지방의 어선들과 연결하여 발달하였다. 해창의 경우 인구 115명, 27호였으며 발안장과는 1km 떨어져 있다.¹⁴⁾ 1926년 당시에는 수원 성내 성외, 오산, 반월, 남양, 新基(송산면), 발안시장 등이 있었다.¹⁵⁾ 발안시장에서는 해산물류, 곡류, 가축류, 직물, 잡화 등을 취급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는 성내 성외, 오산, 남양, 발안, 반월, 신기, 삼괴시장(우정면) 등이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정, 장안지역은 농업을 주로 하면서 어업을 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정지역에는 소규모 어항들이 있었다. 주민들의 생활정도는 소작인이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지주들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경기도에는 인천을 위시하여 수원, 고양, 개성, 시흥군 등에 약 2만 3천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수원군에는 권업모범장, 東山농업주식회사조선지점 농장, 國武合名농회사조선지부농장, 東拓수원출장소농장 등과 함께 3천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¹⁷⁾

2. 면사무소의 설치와 주민탄압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전국을 13도, 12부, 317 군으로 나누어 지방의 행정을 관장하였다. 또한 1914년에는 지방행정 정리조치를 시행하였으며, 1917년에는 이른바 조선 면제를 시행과 더불어 법제화에 들어갔다. 당시 이들 식민지 관료행정 기구는 식민지 민중을 억압, 수탈하는 주요한 도구였다. 예컨대 지방 행정의 최말단 관청이었던 면의 경우를 보아도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의 면은 통감부 시기에 이미 말단 징세의 단위로서, 또는 의병탄압의 보조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방 행정단위의 최말단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합방이후부터였다. 이때부터 일제는 조선인 유력자들을 포섭해 면의 운영자로 임명하고 면구역 개편, 면유재산 확보 등을 통해서 행정 말단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1917년 이른바 조선면제의 시행과 더

14) 『화성군사』, 454쪽

15) 조선총독부, 『실태조사보고서』 其一, 수원군 63쪽

16) 『화성군사』, 454~455쪽

17) 이지원, 「경기도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1989), 311쪽

붙어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당시 면장은 헌병경찰의 물리적 비호 하에 법령의 주지, 징수금의 납입고지, 징수독려, 民籍의 이동보고, 제 청원서류의 전달 그리고 면내 정황보고, 통계자료의 조사, 동자의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¹⁸⁾

특히 농민들은 각종 조세부담이 큰 부담이 되었다. 이 시기 농민들에게 부과된 조세에는 지세, 호세, 지세부가세, 시장세, 屠場稅 연초세, 酒稅, 面費, 학교조합비, 기타 각종 조합비 등의 갖가지 종류가 있었다.¹⁹⁾ 따라서 농민들은 식민지 통치의 큰 피해자였다. 그리하여 우정 장안의 경우 농민들 2 천여명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부터는 모포일도 할 것 없고, 송충이도 잡을 필요 없으며, 해안의 간석공사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민중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이에 4월 3일 우정, 장안면민들은 우선적으로 장안면 사무소를 파괴하고 이어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방화하였다. 당시 각 면사무소 별 피해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안면사무소

가) 건물의 종류 및 파손의 정도

면사무소는 조선식 가옥이므로 기둥, 지붕, 바닥만 남고 창, 유리문, 문지방 도리 따위가 다 부숴지고 타버렸음.

나) 구조 및 그 평수

구조는 조선식 건물, 평가, 초가로서 건평은 14평임.

다) 파괴 또는 소실된 물건의 종류

시계二个, 의자 六개, 탁자 六개, 서류상자 八개, 등사판二个, 벼루집 三개, 벼루 三개, 소화기 三개, 물통二个, 수관 五개, 나무의자 三개, 양등 一개, 대나무자

18) 조재희, 「일제 초기 식민지 국가기구의 형성과 그 성격」, 위의 책 92~93 쪽

19) 임경석, 「1910년대 계급구성과 노동자 농민운동」, 위의 책 202~203 쪽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5, 370 쪽

四개, 저울 一, 붉은 벼루 三, 가위 一, 되(杓) 一, 기 二, 깃대 二, 차그릇 二, 제도 기기 一조, 고무 삼각자 一, 긴자 一, 대나무 축척 一조, 화구 그릇 二, 붓 씻는 그릇 一, 작은 숯돌 一, 유리 막대기 一, 작은 화로 一, 제등(提燈) 二, 이불 一, 요 一, 모포 一, 지우는 도장 一, 고무 도장 판 一, 궤 三, 도장 상자 二, 인주 통 一, 고무 도장 一, 見取圖 七五장, 지적약도 三四二장, 一覽圖 一〇장 그림 넣은 상자 二, 민적부 일부, 기타 도서 장부 거의 전부

라) 이상 각 항의 손해 견적액은 약 630 원으로 추정됨 다만 장부나 제 책의 비용은 다액이 소요될 것이나 쉽게 견적할 수 없음.²¹⁾

2) 우정면사무소

가) 건물의 종류 및 파손의 정도

면사무소는 조선식 가옥으로 지붕, 바닥을 남기고 창 유리문 문지방 도리 따위가 다 파괴되고 소실되었음.

나) 구조 및 그 평수

조선식 건물로 평가 초가이며 건평은 14평임.

다) 파괴 또는 소실된 물건의 종류

서류상자 八, 책 놓는 틀 一, 시계 二, 나무 의자 四, 소화기 二, 연통 一, 작은 칼 一, 세면기 一, 기 二, 벼루 四, 차 그릇 一, 의자 一〇, 탁자 七, 등사판 三, 수관 四, 삼각자 一, 잉크병 一, 벼루집 一, 도장통 一, 컵 三, 연적 二, 가위 五, 미룡 등사판 一, 대나무 자 一, 철주 一, 여러 가지 도장 一, 제등 二, 돛자리 二, 이불 一, 요 一, 램프 一, 질그릇 화로 一, 저울 二, 양동이 一, 종 一, 骨筆 二, 등사 철판 三, 인주 四, 철판 一, 파리통 一, 스탬프대 一, 수입인지 소인 一, 고무판 一, 5품 제도기 一조, 고무 삼각자 二, 긴 자 一, 대나무 축척 一조, 文鎖 四, 화구 그릇 二, 붓 씻는 그릇 一, 작은 숯돌 一, 유리막대기 一, 작은 화로 一, 원통 二,

2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1994,(이하 19 권으로 약함) 352 쪽

종이말이 넣은 원통 二, 분무기 二, 물통 一, 눈금자 一, 갈때기 一, 秋葉式 펌프 一조, 소독할 때 입는 옷 五, 자동 분무기 一조, 민적부, 등록부, 지적약도, 기타 서적, 장부 전부.

라) 이상 각 항의 견적 가격은 약 550 원으로 추정됨. 다만 장부, 제 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액이 소요되므로 쉽게 견적할 수 없음.²²⁾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정, 장안면민들은 면사무소에 있는 각종 서류를 불태웠다. 각종 서류의 주요 내용은 면사무소의 역할과 타 지역에서 불태운 서류들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안성군 양성면이나 부천군 계양면의 농민들이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태운 서류들이 민적부, 조선인 거주등록부, 과세호수대장, 근검저축조합 저금대장, 주세수시수입 수납부, 연초판매 수시수입 수납부, 묘지사용료 원부철, 국유지 소작인 명부 등이었음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²³⁾

3.1운동 당시 장안면장은 金賢默이었으며, 우정면장은 崔重煥이었다. 김현묵은 3.1운동 당시 34세로, 수원군 장안면 錦衣里에 살고 있었다. 종교는 없었다.²⁴⁾ 그는 어릴 적부터 장안면 금의리에 있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뒤에 수원 사립 화성학교에서 7개월, 수원 사립 측량학교에서 4개월 공부하였다.²⁵⁾ 또한 서울에서 警務學校를 졸업하고 잠시 순사보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²⁶⁾ 그는 일본어를 야학하여 간단한 회화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1918년 12월 19일부터 우정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²⁷⁾ 김현묵의 재산 정도를 보면, 주택 초가 한 채 시가 180원, 논 4두락 반, 시가 450원, 밭 사흘같이 시가 300원, 산 3000평 시가 200원, 빌려준 소 두 마리 시가 200원, 면장 봉급 1달에 14원 등이며, 가족은 총 7명이다.²⁸⁾ 우정면장인 崔重煥은 우정면 한각리에 거주하였으며, 당 43세였다.²⁹⁾ 그

22) 19권, 352~353쪽

23) 이지원, 「경기도지방의 3.1운동」, 344쪽

24) 19권, 344쪽, 김현묵 심문조서

25) 19권, 247쪽, 김현묵 심문조서

26) 19권, 344쪽, 김현묵 심문조서

27) 19권, 246쪽, 김현묵 심문조서

28) 19권, 247쪽, 김현묵 심문조서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우정 장안면민들이 면사무소를 파괴한 것은 순사보 오인영의 신문조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면사무소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³⁰⁾

3. 화수리 주재소의 설치와 주민탄압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점 한 후 식민통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년 9월 10일 칙령 제343호로 <조선주차헌병대조례>를 발표하였다.³¹⁾ 이어 일제는 이를 토대로 <조선통감부 경찰관서제>를 공포하여 통감부의 헌병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기구를 갖춘 헌병경찰은 1910년에 전국에 1,135개의 헌병경찰기관에 경찰 5,694명, 헌병 2,019명, 합계 7,713명으로 당시 한국인 2천명에 1명씩으로 되었다. 이들 방대한 조직을 갖춘 헌병경찰은 군사, 치안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기타 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다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³²⁾

일제는 1914년 3월의 부, 군, 면을 통폐합하여 12부, 220군, 2,522면으로 지방 행정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헌병경찰의 배치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생겨 그 결과 모든 군 단위에 경찰서 내지는 경찰서의 사무를 관장하는 헌병 병관이 최소한 하나씩 설치되었다.³³⁾ 그리하여 1914년 현재 경찰기관이 732(순사주재소 504, 순사파출소 108, 경무부 13, 경찰서 101 등), 헌병기관이 997개였다 또한 경찰은 5,756명, 헌병은 11,159명이었고, 그 중 한국인은 警視 1명, 警部 100명, 순사 100명이었고, 순사보와 헌병보조원은 전원 한국인이었다.³⁴⁾

헌병경찰의 기능을 보면 군사경찰(의병토벌, 첩보수집), 정치사찰, 사법권행사, 경제경찰, 학사경찰, 외사경찰, 助長行政, 위생경찰(종두보급, 害獸驅除, 전염병예

29) 20권, 166쪽, 증인 최중환 조서

30) 19권, 245쪽, 피고인 오인영 신문조서.

31) 신주백,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주둔 일본군」, 『한국사연구』 109(2000), 134~137쪽

32) 김운태,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한국사』 47(2001), 23~24쪽.

33) 신주백,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주둔 일본군」, 146~147쪽

34) 김운태,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42~43쪽

방, 도축단속 등), 기타(해적경계, 우편호위, 수로수축, 묘지이장, 화장단속, 도박, 巫人, 藝唱妓, 매음부, 풍속 등의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³⁵⁾ 즉 헌병경찰은 검사사무, 민사소송의 조정, 행정사무, 호구조사 등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헌병경찰에게 광범한 권한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태형령, 경찰범처벌규칙, 犯罪即決例 등의 법규까지 제정하였다. 특히 범죄즉결례는 1910년 12월에 제정된 즉결심판권이다.³⁶⁾ 이것은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 태형, 구류 등의 억압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한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박, 상해미수, 폭행 등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탄압의 수단이었다.³⁷⁾ 특히 1912년 4월부터 검찰 및 집달리, 위생개선 등의 사무도 맡게 되었는데³⁸⁾ 위생개선과 관련하여 한인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1910년 8월 5일 고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경찰서 관할 하에 남양, 발안장, 진위, 삼괴, 안중장, 평택순사주재소 등이 있었다.³⁹⁾ 1914년 9월경에는 수원경찰서 관내에 10개 주재소가 있었다. 매산리, 발안장, 병점, 蓼塘, 남양, 삼괴, 마산포, 野牧里, 오산, 반월장 순사주재소 등이다.⁴⁰⁾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보 1917년 2월 8일자에 따르면 수원경찰서관내에 수원면 梅山里, 향남면 발안리, 台章面 餅店里, 楊甘面 蓼塘里, 陰德面 남양리, 우정면 화수리, 송산면 沙江里, 매송면 泉川里, 城湖面 오산리, 半月面 八谷1리, 의왕면 古川里 등에 매산리, 발안, 병점, 요당, 남양, 화수, 사강, 천천, 오산, 반월, 고천 순사주재소가 설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발안장 주재소에는 조선총독부 순사 井上龜雄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평민으로서 연령은 1919년 당시 41세였다.⁴¹⁾ 제암리 및 고주리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순사보 趙熙昌이다. 그는 제암리 322번지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체적등본에 따르면, 1914년 4월 7일 경기도 파주군 칠정면 문산 상동에서 이주하였고, 1917년 3월 26일 수원군 성호면 도산리로부터 제암리로 이주하였

35) 김운태, 위의 책, 44쪽

36)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4호(1994년 봄), 212~213쪽

37) 김운태,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44~45쪽

38) 신주백,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주둔 일본군, 145쪽

39)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72), 736~737쪽

40)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784쪽

41) 20권, 277쪽, 증인 井上龜雄 조서

다. 1919년 4월 제암리 고주리참변 이후 동년 6월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염리로 이사하였다. 풍양 조씨로 부친은 조영년, 어머니는 유씨, 부인은 오봉근이고, 슬하에 1남 1녀, 조옥희, 조성재를 두었다

화수리 주재소에는 일본순사 1명, 조선 순사보 3명이 있었다. 주임순사 川端豊太郎의 본적은 鹿兒島縣 薩摩郡 下瓶村 手内였으며, 당년 25세였다.⁴²⁾ 그리고 순사보 吳麟永은 본적은 京畿道 振威郡 西面 松花里一七五번지였고, 출생지는 忠淸南道 牙山郡 排芳面 長在里이며, 사립평택보통학교 2년을 수료하였다. 1919년 당시 25세였다. 그는 1913년 3월 19일 순사보가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토지조사국의 筆生, 또는 면의 雇員으로 일하였다. 오인영은 1917년 12월 17일부터 화수리 주재소에 부임하였다. 순사보 朴在玉, 李相龍과는 동숙하며 지내고 있었다.⁴³⁾

순사보 朴在玉은 본적 및 출생지가 京畿道 水原郡 陰德面 松林里 四八七번지였다. 1919년 당시 25세였다. 1918년 3월 26일 순사보에 임명되었으며, 그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10일 화수리 주재소에 착임하였다.⁴⁴⁾ 순사보 이상룡은 1919년 당시 23세였으며, 주소는 수원군 수원면 南昌里였다. 그는 1918년 10월부터 1919년 4월 3일까지 화수리 주재소에서 근무하였다.⁴⁵⁾

1917년 장안면 화수리에 주재소가 설치되자, 부임한 川端 순사는 조선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였다.⁴⁶⁾ 특히 조선인들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시행하여 조선인들을 모욕하는 사태들이 벌어졌다. 그는 당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뺨을 때리는 등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⁴⁷⁾ 또한 川端 순사는 부임 이래로 도박에 대하여 심하게 단속하였기 때문에 동민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인다는 상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⁸⁾ 특히 주곡리의 차회식의 경우 도박혐의로 옥고까지 치른 상황이었다. 따라서 차회식은 주곡리,

42) 19권, 224쪽, 검증조서.

43) 20권, 82쪽, 증인 오인영 심문조서.

44) 증인 박재옥 조서(20권, 284쪽)에는 3월 11일에 부임하여 6월 11일에 남양주재소로 전근으로 되어 있음.

45) 20권, 294-295쪽, 증인 이상룡 조서.

46) 19권, 245쪽.

47) 일본 NAK 방영 <삼일운동사>(1990년 3월)

48) 19권, 342쪽, 오인영 심문조서.

석포리, 수촌리 등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수리 항쟁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4. 우정면 장안면 일대의 간척사업

화성시에 연하고 있는 해안선의 길이는 장장 196km로 이는 경기도 해안선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거리이다. 해안선의 모습은 드나듦이 대단히 복잡하여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⁴⁹⁾

화성시의 해안선은 굴곡이 특히 심하고 조차가 큰 데다가 수심이 얕아 간사지의 발달이 두드러짐으로써 간척사업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곳 해안에서는 일찍부터 크고 작은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에는 주로 주민들의 손에 의하여 갯벌을 조금씩 막아 경지로 이용되어 오던 것이 일제시대에는 경지확장, 염전개발 등으로 점차 규모가 커진 것 같다.⁵⁰⁾

당시 장안면 석포리 지역에는 수로를 만들고 개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石倉玉吉(憲一), 永野藤藏라는 일본인들이 와 있었다.⁵¹⁾ 그들은 秋山開墾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石倉은 경성부 元町 二丁目 61번지에 살고 있었으며, 청부업자이고, 당시 34세였다. 그는 1918년 5월부터 석포리에 와 있으면서 간사지 공사를 감독하고 한 달에 2, 3회쯤 용달을 위하여 서울에 다녀오곤 하였다.⁵²⁾

1918년 3월부터 석포리에서 간사지 경영사업을 하고 있었다 永野는 석포리 차병혁의 아버지 車尙文집에 1916년경부터 임시사무소로 빌려 출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永野는 차병혁과는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였다.⁵³⁾

당시 개간 사업에는 경성에서 불러온 인부 29명과 현지에서 조달된 인부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에서 온 인부로 1918년부터 4월 3일 당일까지 일하고 있는 인물로는 申周伯, 朴雲成, 李順學, 崔道日, 李慶植, 李順植, 崔聖天, 李用九, 金奉水, 金永植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4월 3일 이전에 해고된 사람은 申

49) 화성군사, 27쪽

50) 화성군사, 28쪽

51) 20권, 7쪽, 차병혁조서

52) 20권, 269쪽, 증인 福田鐵治조서 21권 9쪽, 증인 永野藤藏 조서

53) 21권, 10쪽, 증인 永野심문조서

永壽, 李喜俊, 金學俊, 趙順萬, 金奉城, 洪億元, 朴春日, 姜淑榮, 張便文, 李聖奎, 張春明, 鄭元得, 李興元, 徐日城, 任順植, 金興元, 宋大正, 朴俊榮 등이다.⁵⁴⁾

경성에서 온 인부는 총 29명인데 그중 일부는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고 만세 당일에는 12~13명이었다. 그들은 시위 전에 만세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또한 4월 2일경부터 주민이 많이 발안 장터쪽에서 몰려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永野는 술을 마시려면 사다가 마시라고 했고, 일체 마을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있었다.⁵⁵⁾

신주백은 석창 간사지 공장에서 인부감독으로 1918년 3월부터 일하고 있다.⁵⁶⁾ 한편 이들 인부들 가운데에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文春實이 그 예이다. 그는 용인군 二東面 默里 출신으로 당 41세 교육을 받은바 없으나 당시 주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⁵⁷⁾

한편 석포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면장 최중환은, “석포리 사람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주모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정면장 崔重煥은 3.1 운동의 주모자는 “석포리 사람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⁵⁸⁾

석포리에서 간척공사를 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소작을 빼앗아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문춘실은 1919년 7월 2일 경성 서대문 감옥에서 열린 신문조서 제2회에서

문: 그대가 쌍봉산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은 장봉래, 金致德 등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한데 어떤가,

답: 그 사람들이 소작하는 토지를 石倉이 빼앗아서 나에게 소작을 하도록 한 일이 있다. 그러한 관계로 그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는 지도 모른다.⁵⁹⁾

54) 21권, 11쪽, 증인 永野 심문조서

55) 21권, 9-10쪽, 증인 永野 심문조서.

56) 21권, 59쪽, 증인 문춘실 심문조서.

57) 20권, 117쪽, 문춘실 청취서

58) 20권, 140쪽, 증인 최중환 청취서

59) 21권, 40쪽, 신주백 심문조서

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점을 통하여 볼 때 일본인들은 임의로 한인들의 소작권을 빼앗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작권을 빼앗긴 한인들은 이에 깊은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한편 당시 석포리에서는 바다를 막는 일로 인해 각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락에는 많은 주막들이 있었고, 술집도 여러 집이 있었다. 일본인 감독들은 술을 마시면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렸으며, 아녀자들에게 희롱을 하여 주민들과 이따금 시비가 벌어졌다. 또한 일본인 감독들은 너무나 과중하게 인부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여 인부들은 늘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⁶⁰⁾ 따라서 이곳 주민들과 인부들은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화수리 주채소를 불태운 혐의로 징역 15년을 언도 받은 이영쇠 역시 외지인이었다.⁶¹⁾ 수촌리의 차인범은 李鳳九의 말을 빌어, “석포리의 노동자가 몽둥이로 순사를 타살했다고⁶²⁾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장안면장 김현묵도 그의 조서에서, “노동자풍의 20명 쯤이 (우정)면장의 집으로 몰려가서 찾는 모양이었는데 없다고 하면서 돌아왔다⁶³⁾”고 한테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장안리에도 방축공사가 있었다. 吳敬煥은 4월 3일 장안리의 李周相의 방축공사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다.⁶⁴⁾ 또한 우정면 覓祐里의 경우도 방축공사장이 있었다. 떡우리에 살고 있던 宋榮晩의 경우도 4월 3일 아침부터 아들과 머슴을 데리고 방축공사장의 수문을 수리하러 갔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⁶⁵⁾

장안면 장안리 구장 金俊植은 振威郡 浦升面 洪源里의 佐坂의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⁶⁾ 이는 좌판의 방축공사장이라고 짐작된다. 이곳 좌판의 공사장의 경우 좌판의 동생 佐坂才吉이 일본인 감독과 조선인 감독 朴東鉉, 洪士文, 金益三 등을 이끌고 다니면서 장안리, 흥원리 주위의 부락들을 돌아다니

60) 김선진, 위의 책, 93쪽.

61) 김선진, 위의 책, 99쪽.

62) 20권, 5쪽, 차인범 조서

63) 20권, 78쪽, 김현묵 심문조서

64) 20권, 185쪽, 증인, 오경환조서.

65) 20권, 169쪽, 증인 송영만조서

66) 20권, 151쪽, 증인 金致安조서

며 횡포가 심하였다.⁶⁷⁾ 특히 흥원리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감독들은 흥원리에 술집이 없어 술 생각만 나면 배를 타고 이따금 장안리로 나와 술을 마시고 돌아가곤 했다. 그 당시 장안리에는 그들 인부를 상대로 하는 술집이 12 개나 있었다. 일본인 감독들은 술을 마시면 부락 아녀자를 희롱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횡포가 말이 아니었다.⁶⁸⁾

당시 장안면 석포리에서는 개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石倉憲一과 永野藤藏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와서 수로를 만들고 개간사업을 하고 있었고,⁶⁾ 장안면에서는 간사지를 수축하기 위하여 인부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면장을 간사지에 처넣고 밟아 죽여 버리라”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⁶⁹⁾

III. 화수리 항쟁의 주도세력

화수리 항쟁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김선진은 그의 저서에서 천도교신자인 수촌리 구장 白樂烈에 주목하고 있다.⁷⁰⁾ 그리고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없으나 제암리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볼 때, 체포된 수촌리의 인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정 장안지역의 만세운동의 경우 이를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주곡리의 차희식, 석포리의 구장 차병한, 수촌리의 구장 백낙열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행동대로서 주곡리, 석포리 수촌리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우정 장안 전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한 형태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곡리, 석포리, 장안리의 유교, 수촌리의 기독교, 수촌리 어은리 기린리 등 천도교 장안리 등의 천주교 등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한 형태로서 파악된다.

우정 장안지역의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있었던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만세

67) 김선진, 위의 책, 88쪽.

68) 김선진, 위의 책, 82쪽.

69)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 우정면 3.1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9(1995), 주7 번 참조

70) 김선진, 위의 책, 132~135쪽.

운동을 집한 인물들에 의해 전해짐으로써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¹⁾ 白樂烈, 金成烈, 安鍾厚 등이 그러하며,⁷²⁾ 정서송 역시 그러하다고 밝히고 있다.⁷³⁾ 아울러 수원지역에서의 만세운동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도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낙열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세력

천도교측의 참여를 보면, 서울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백낙열이 우정, 장안지역의 천도교 전 교실을 돌며 만세운동을 촉구한데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⁴⁾ 3·1 운동이 발발하자 장안면 수촌리 천도교 남양교구 순회전도사인 백낙열은 김성열, 안중후 등과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온 후 남양 교구 관하 각 전 교실을 돌며 거목골 李鍾根·禹英圭·禹鍾烈, 기린골 金顯助·金益培, 장안리 越教淳·金仁泰, 덕다리의 金昌植, 우정면 사기말의 金永甫, 고온리의 白樂溫, 덕목리의 韓世教, 안곡동 朴龍錫·朴雲錫, 우정면 주곡리의 車喜植, 팔탄면 고주리의 金興烈과 거사를 협의했고, 김홍열은 제암·고주리 천도교 전교사인 제암리 安鍾煥과 安政玉·안중후 등과 연락을 취했다.⁷⁵⁾ 당시 천도교는 고주리, 장안, 우정 등지에 일정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⁷⁶⁾ 또한 백낙열은 수촌리 구장으로서 수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우정면사무소에 가서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를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⁷⁷⁾ 백낙열은 화수리 주재소 앞 개물주막에서도 만세를 불렀다. 아울러 그때에도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오늘이 밥을 마지막으로 먹는 것이니 다 오늘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고 각각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창하였다.⁷⁸⁾ 아울

71) 21권, 122쪽, 김응식 조서

72) 김선진, 위의 책, 32쪽.

73) 정서송, 「쌍봉산의 헛불들」, 『신동아』(1965년 3월호), 80쪽

74) 김선진, 위의 책, 32쪽.

75) 김선진, 위의 책, 134쪽.

76)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2001), 109~116쪽

77) 19권, 324쪽, 김여근 심문조서

78) 20권, 78쪽, 김현목 심문조서

러 순사를 살해한 후 백낙열은 ‘이제 수비대가 오면 총으로 우리를 사살할 것이니 남산에 가서 웅거하여 대항하자’고 결사항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⁷⁹⁾

2. 김교철 중심의 수촌리의 기독교세력

수촌리 주민들은 화수리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3~4 차례에 걸쳐 일제의 탄압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것이다. 수촌리 참여자 가운데 방축골을 제외한 큰말, 가장말, 꽃밭에 등에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金教哲이 그 중심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당시 41세의 나이로 1910년에 기독교에 입교하여 1916년에는 남양교회 담임전도사를 역임하였으며 3.1 운동 당시에는 수촌교회와 제암리교회의 담임전도사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⁸⁰⁾

김교철은 4월초 풍문을 통하여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4월 2일 밤에 그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보았다.⁸¹⁾ 이때 4월 3일의 만세운동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교철이 예배를 보고 나올 무렵 수촌리 부근에 있는 14개 소의 산에서 불을 피우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또한 수촌리 산에서도 만세를 불렀다.⁸²⁾

김교철은 일제의 신문에서 독립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는 다만 신의 뜻에 따르므로 별로 독립이 되어서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나 일찍이 기독교 신자인 山道の사가 조선인은 일한합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겠지만 다 신의 뜻이라는 것을 들었으므로 이번에 독립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신의 뜻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⁸³⁾”라고 하여 신의 뜻에 따를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교철 전도사는 장안면사무소, 쌍봉산 만세운동, 우정면사무소, 화수리 항쟁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는 화수리 주재소에서 순사가 살해당한 것을 보고 기도를 드렸다고 밝히고 있다.⁸⁴⁾ 이로 보아 그가 일제의 신문에서 직접적으로 독립에 대한 의사를 밝

79) 20권, 78쪽, 김현묵 심문조서

80)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왕도출판사, 1981), 197~197쪽, 19권, 289쪽.

81) 21권, 116쪽, 김교철 심문조서

82) 21권, 116쪽

83) 21권, 117쪽, 김교철 심문조서

하고 있지 않으나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점은 수촌리 기독교인들의 만세운동 참여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수촌리 주민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는 차인범, 김덕삼, 김종학, 김명우, 김응오, 김응식 등을 들 수 있다. 수촌리에서 백낙열 이외에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수촌리지역 3.1운동 주도자

인명	나이	주소	종교	학력	형량
車仁範	19	694(2), 큰말	기독교, 8세부터 신앙 14세시 세례	서당에서 한문	징역 10년
金興三	39	가장말	무	무학문맹	징역 3년
金德三	45/42?	573, 가장말	기독교	서당에서 한문 배움	징역 3년
白順益	39	꽃밭에	무	무학문맹	징역 3년
金鍾學	30	68, 꽃밭에	기독교	한문	징역 2년 6월
金朋友	34	73, 꽃밭에	기독교	무학, 언문해독	징역 3년
金應五	50	584, 꽃밭에	기독교	무학문맹	징역 2년 6월
金教哲	41 1881-1954	577, 가장말	1910년 기독교에 입교 1916년 남양교회 담임 전도사, 1919년 당시 수 천교회와 제임교회의 담임 전도사;(홍석창 삼 인운동사, 195-197).	7세부터서당에서 한 문, 1911년 배재학당 입학 1년만에 졸업 1912년 피어선 신학 원 입학, 1914년 졸업	징역 3년
金汝根	34	128, 용당골	무	서당에서 한문	징역 3년
金應植	44	72, 꽃밭에	기독교		징역 3년
金黃雲	30	127, 용당골	무	무학	징역 2년 6월
金德根	32	가장말	무	무학	징역 3년
鄭淳榮	53	681, 큰말	무		징역 5년
李順模	28/37.8?	69, 꽃밭에	천주교		징역 10년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21 등 참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촌리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대부분 30~50대로 집안의 가장들이었다. 체포된 주요 인물들은 김교철을 비롯하여 김홍

삼, 김응오 등 주로 가장말 사람들이 많음을 엿 볼 수 있다. 종교는 기독교 감리교 인이 다수이며, 학력은 무학자 외에 차인범, 김덕삼, 김종학, 김명우, 김교철, 김여근 등이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⁸⁵⁾

3. 차병한, 차희식을 중심으로 한 석포리 유교 토착 세력

1) 차병한

석포리 주곡리 주민들은 거의가 다 유교를 숭상하였고, 대부분 차씨 장씨 집안들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 종친 어른의 한마디면 모두들 복종하여 따르는 상황이었다.⁸⁶⁾ 특히 석포리 마을에는 조선시대 이시애의 난 때 순직한 강열공의 사당이 있어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을 항상 가다듬고 있었다.⁸⁷⁾

석포리의 구장인 차병한은 당시 35세로 석포리에 사는 차병혁과는 8촌간이었다. 그는 1913년 2월부터 석포리의 구장이었으며, 13세부터 한문공부를 7년 쯤 하여 통감, 논어, 맹자 등 기본 한학을 공부한 지식층이었다. 차병한은 3월 27일 구장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⁸⁸⁾ 한편 차병한은 1918년 여름까지 매일신보를 직접 구독하였으며, 그 후에는 7촌이 되는 차상문의 집에서 매일신보를 보고 3.1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⁸⁹⁾

차병혁은 당시 31세로 우정면 석포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당시 지역의 지주 宋榮晩⁹⁰⁾의 마름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편이었다.⁹¹⁾ 그리고 그의 부친 차상문과 동생 車炳億(당시 24세)은 포목상을 하고 있었다.⁹²⁾ 차병혁은 당시 솔가리 수백개를 사 모아 배에 실어 서울 쪽으로 싣고 가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永野와는 7~8년 전부터 아는 사이이고

85) 19권, 283~286쪽

86) 김선진, 위의 책, 92쪽

87) 차진한(차병혁의 손자)의 증언

88) 20권, 8~10쪽, 91, 차병한 조서 21 권 91 쪽 차병한 조서

89) 21권, 91쪽, 차병한 심문조서

90) 송영만은 당시 43세로 우정면 떡우리 229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20 권 169 쪽 증인 송영만 조서

91) 20권, 6~7쪽, 차병혁조서, 차병혁의 손자 차진한과의 면담에서 청취

92) 20권, 7쪽, 차병혁 조서

석창과는 1918년부터 아는 사이였다.⁹³⁾ 석포리의 개간 사업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과 배를 이용하여 서울과 장사를 하던 차씨 일가에게는 큰 경제적 타격이었을 것이다.

시위가 있기 1주일전인 3월 27일 구장회의가 열렸다. 이때 참석자는 수촌리의 백낙열, 어은리의 李時雨, 篤亭리의 崔建煥, 장안리의 金俊植, 德多리의 金大植, 砂浪리의 禹始鉉, 砂谷리의 金贊圭, 錦衣리의 李浩惠, 석포리의 車炳漢, 蘆眞리의 金濟允의 아들 등 10명이었다.⁹⁴⁾ 이 회의에서 석포리의 구장 차병한이 일동에게 ‘수일 전 발안리에서 시위가 있었을 때 체포된 사람을 일본인 아이가 계다(일본식 낙산)로 구타라는 것을 보고 분개를 견딜 수 없었으니 만세를 부르자고 말했다고 한다.’⁹⁵⁾ 이점을 통해서 볼 때 차병한은 3월 31일에 있었던 발안 시위에 참여하였고, 우정 장안 지역의 만세운동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⁹⁶⁾ 또한 차병한은 4월 3일 차병혁과 함께 한 걸음 앞서서 면사무소에 와서 오늘 우정면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했었던 것이다.⁹⁷⁾ 한편 석포리 구장인 차병한은 4월 3일 아침 소사인 엄성구집에 가서 주곡리의 차희식이 많은 동민들을 데리고 장안면사무소로 몰려간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을도 가기로 했으니 빠짐없이 전해달라고 하였다.⁹⁸⁾

또한 수촌리의 차인범 역시 차병한이 다수에게 명령하고 지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⁹⁹⁾ 김현묵 역시 우정면 사무소 파괴시 석포리 사람들이 수건으로 머리띠를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⁰⁾ 그리고 장안리 마을의 소사인 朴福龍(일명 朴善濟) 청취서에 따르면, “누가 주가 되어서 위 소요를 기획했는가”라는 질문에, “석포리의 사람이 주가 되어서 위 소요를 계획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폭행자의 주된 사람은 누구누구인가”라는

93) 21권, 58쪽, 참고인 차병익 심문조서.

94) 20권, 80쪽

95) 위와 같음.

96) 19권, 348쪽, 김현묵 심문조서

97) 19권, 348쪽, 김현묵 심문조서

98) 20권, 113쪽, 엄성구 청취서 2회

99) 19권, 290-291쪽, 차인범 심문조서

100) 19권, 346쪽

질문에도, “간 사람은 모두 폭행했을 것이다 그 중에 석포리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것 같다(101)”라고 하여 석포리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참여는 간척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생업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에도 간척사업의 경우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만세시위 이후 5월부터 석포리의 구장을 담당한 金顯甲 청취서에 따르면, 102) “석포리에서 누구누구가 갔었는가”라는 질문에, “남김없이 다 갔다 한 사람도 소요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여 석포리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석포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바로 간척사업이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간척지가 생기면 주곡리의 경우 부유해 질 수 있으나 석포리의 경우 생존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곡리의 경우 석포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차희식, 장소진, 장제덕 등이 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한편 주곡리의 구장인 韓奎會는 차희식이 만세운동 동참을 요구하자 이를 찬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 외 주곡리 주민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차희식 등은 ‘이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욕을 하였던 것이다. 103) 석포리 사람으로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요 인물을 도표로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석포리 거주자로서 3.1운동 참여자

인명	나이	주소	종교	학력	비고
車炳漢	36	522	무	한학	석포리 구장
李永釗	22	100			노동자
印壽萬	26	417			
尹永善	26		무		
車炳赫	32	537	무		차병한과 8촌
車炳億	24				차병혁의 동생, 포목상
嚴聖九	39				석포리 소사

101) 20권, 87-88쪽, 박복룡 청취서

102) 20권, 119쪽

103) 20권, 92쪽, 한규회 청취서

2) 행동대장 차희식과 그의 그룹

만세운동에 주극리에 살고 있는 차희식도 행동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⁰⁴⁾ 그는 교육도 못 받고, 종교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신문 잡지 등을 읽을 수 없었다. 1915년 수원경찰서에서 도박죄로 태형 60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¹⁰⁵⁾ 그러나 그 후 경성복심법원에서 원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3개월을 받고, 그 집행을 마쳤다.¹⁰⁶⁾ 그 후 그는 1918년 端川순사가 부임한 이래 도박을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감시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¹⁰⁷⁾ 그러던 와중에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있던 수일 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鬮서방으로부터 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¹⁰⁸⁾ 특히 그는 성격이 활발하고 교재력도 있었으며 힘도 장사였다고 한다. 당시 구슬리에 살았다. 처가가 양영대군과 전주이씨로서 구슬에 주로 거주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차병혁, 차병한 등과는 일가였으며, 차희식이 한 향렬 높다고 한다.¹⁰⁹⁾

차희식은 동지인 張濟德(張順年), 張韶鎭(張奉來), 金興植(金致德) 등과 함께 행동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홍삼은 신문조서에서 화수리항쟁과 관련하여 군중을 지휘 선동한 사람이 석포리의 김치덕, 장봉래, 장순명, 차희식 등이라고 증언하고 있다.¹¹⁰⁾ 또한 金德三도 우정면사무소의 파괴 전소에 대하여,

김치덕, 장봉래, 차희식, 장순명으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무소를 부수고 서류에 불을 지른 것은 차봉습(차희식-필자주)이었다¹¹¹⁾

고 하고, 이어서 화수리 항쟁과 관련하여서도 “주재소에 가서는 차희식이 방화하겠다고 하면서 주재소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김치덕, 장봉래, 장순명 그밖에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주재소에 투석했다”¹¹²⁾고 하고 있는 것이다.

104) 20권, 138쪽 증인 박영춘 청취서

105) 20권, 156쪽 차희식청취서

106) 21권, 95쪽 차희식 심문조서

107) 20권, 157쪽 차희식청취서

108) 20권, 156쪽 차희식청취서

109) 차희식의 손자 차창규와의 면담.

110) 19권, 299쪽

111) 19권, 300쪽

장봉래, 김치덕 등은 자신의 소작하던 토지를 일본인 간척사업 감독 石倉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다.¹¹³⁾ 이점이 이들이 만세운동 참여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제덕은 수원군 楊甘面 출신으로 1919년 38세였다. 무종교, 무교육상태였다.¹¹⁴⁾ 장소진은 석포리 출신으로 주소지를 주곡리에 두고 있었다. 그는 당시 34세로, 종교는 없고, 무교육이었다.¹¹⁵⁾ 金興植(金致德)은 1919년 37세로, 수원군 음덕면 茂松里 출생으로 당시 우정면 주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¹¹⁶⁾

동년 4월 3일 주곡리의 차회식과 그 동지인 張濟德, 張韶鎭 등은 석포리에서 李永鈞 등에게 대하여 “오늘 면내에서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독립만세를 외칠 터이니 나와서 참가하라”는 뜻을 전하였다.¹¹⁷⁾ 특히 이들은 ‘오늘 다 나와서 만세를 부르게 되어 있다. 나오지 않는 사람의 집은 불태워버린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므로 나도 집이 불타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¹¹⁸⁾ 이영쇠는 특별한 종교가 없으며, 문맹인 인물이었다.¹¹⁹⁾

한편 차회식 등은 우선 주곡리 구장 韓奎會(韓雲敬)를 찾아가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규회는 당시 53세로 20년 동안 구장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4월 3일 아침 마을에서 다 나와 쌍봉산에 모여라, 만약 나오지 않는 집이 있으면 오늘 저녁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했다. 그 후 그들은 뒷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불렀다.¹²⁰⁾ 또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 뒷산에서 북을 치며 독려했다.¹²¹⁾ 주곡리를 중심으로 한 중심인물들을 도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12) 19권, 300쪽
 - 113) 21권, 41쪽, 문춘실 심문조서
 - 114) 20권, 116쪽, 장제덕 청취서
 - 115) 20권, 114쪽, 장소진 청취서
 - 116) 20권, 115~116쪽, 김흥식 청취서
 - 117) 『독립운동사자료집』 5, 화수리 재판기록
 - 118) 20권, 11쪽, 이영쇠 조서
 - 119) 20권, 15쪽, 이영쇠 조서
 - 120) 20권, 104~105쪽, 증인 한규회 조서
 - 121) 20권, 113쪽, 엄성구 청취서 2회

<표 3> 주곡리 거주자로서 3.1운동 참여자

인명	나이	주소	종교	학력	비고
車喜植(車鳳習, 車奉習)	44	주곡리 81	무	무	석포리출생, 1915년 도박죄로 태형 60
張韶鎭(張鳳來)	34	주곡리	무	무	석포리 출생
金興植(金致德)	37	주곡리 83	무	무	수원군 음덕면 茂松里출생
張順明(張濟德)	38	주곡리 53	무	무	수원군 양감면 출생
文春實	41	주곡리 242	무	무	용인군 二東面 墨里출생

4. 장안리의 천주교세력

장안면 장안리 주민들도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 주민 가운데에는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천주교 신자들이다. 金善文(안드레이), 金汝春(요셉), 安敬德(가벨), 金三萬, 金光玉(베드로), 崔敬八(도마) 등이 그들이다.¹²²⁾ 이들 중 김선문은 3대 전부터 천주교를 신앙해 온 독실한 집안이었다.

김여춘은 7~8년 전부터, 최경팔은 2년 전부터, 김삼만은 부모 때부터 신앙하였던 것이다.¹²³⁾ 장안리 주민들은 장안리에서 50리 떨어진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았지만, 당시에는 김선문 집(장안리 1177번지) 근처에 새로운 교당을 만들어 미사를 보고자 하였다. 그 교당은 천도교인인 김여춘, 안경덕, 최경팔, 김삼만 등이 출연하여 건립한 것이었다.¹²⁴⁾ 천주교에서는 당시 김선문이 조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나의 교회에는 신부가 있고 그것은 결코 그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항상 설유하고 있는 것이다.¹²⁵⁾

만세운동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122) 천주교왕립교회, 천주교왕립(갓등이)교회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집(I), 천주교왕립교회, 1990, 270~271쪽. 1919년 6월 22일자로 김원영 신부가 주교에게 보낸 편지.

123) 20권, 27 쪽

124) 20권, 29 쪽

125) 20권, 29 쪽

장안리 주민들 가운데에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전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도 한 특징이다. 朴景模, 崔敬八, 鄭順業, 金三萬등이 그러하다 장안리 주민들 가운데 만세운동의 주도자는 다음과 같다.

<표 4> 장안리 거주자로서 3.1운동 참여자

이름	나이	주소(직업)	종교	학력	출생지및비고
金善文	45	1177	천주교3대 전부터 신앙		경성부 桂洞
金汝春	52	1271	천주교7~8년전		
安敬德	32	1776	천주교		
朴景模	41	1104(소금굽는일)	기독교		
金正杓	50	1152	천도교 (2~3년전부터)		
崔敬八	44	127(소금만드는 것)	천주교 2년		南谷面
金致培	35	75			
鄭殷山	33	1120			
鄭順業	22	(소금 염전)			
宋壽萬 (宋善良)	29	1180(농업 및 목수)			우정 화수리
趙教舜	34	1208	천도교		백낙열이 함께 의논한 인물. 천도교전도사
金三萬	26	(소금,농사)	천주교, 부모때		
金寬植	26	1209			우정 石水里
朴福龍	29		성결교		경성부, 장안리의 소사

IV. 화수리 항쟁의 내용

1. 화수리 항쟁의 공격계획 및 실행

1919년 3.1운동시 일제는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에 주재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었다. 이에 우정면, 장안면 일대 주민 2천여명은 장안면사무소,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한데 이어 화수리 주재소로 몰려가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재소에 투석, 방화하고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 川端 를 살해하는 등 적극적인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오후 3시반경에 우정 면사무소를 출발했는데 면장 김현묵은 구한국국기를 들고, 약 2천명의 선두에 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화수리 주재소로 가는 도중에 한각리에서 주민이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때 면장 김현묵은 누구인가의 권유로 군중에 대하여 ‘지금부터 주재소를 습격한다. 순사가 총을 쏘아 죽는 사람이 있더라도 시체를 타고 넘어서 주재소에 뛰어 들어 파괴방화하고, 순사를 때려죽이라’고 연설을 하였다.¹²⁶⁾ 또 면장은 40세쯤의 장안리 사람인 金文明의 ¹²⁷⁾지시에 따라 ‘주재소를 공격하는 데는 규칙이 정연한 원형으로 진을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말하였다.¹²⁸⁾ 그리고 약 2천여명의 군중을 2단으로 나누고 1단은 동쪽, 일단은 서쪽에서 전진하여 주재소를 습격하기로 하였다.¹²⁹⁾

화수리에 도착한 일행은 다음과 같이 화수리 주재소를 공격하였다. 차병한은 군중을 지휘하여 동면 화수리에 있는 화수경찰관 주재소로 몰려가서 차인범, 이영쇠, 백순익, 김덕근은 그 주재소 앞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¹³⁰⁾ 이어 차병한은 군중을 지휘하고 김홍식, 장소진, 장제덕, 백순익, 김종학, 인수만, 김명우, 김응오, 김교철, 김여근, 김황운, 윤영선 등은 주재소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이영쇠는 주재소를 불태워 버리려고 주재소 뒤로 달려가 불을 놓았다. 이에 주재소 안에 있던 순사 川端豊太郎이 총을 쏘면서 도망쳐 나오자 군중들은 그를 추적하고 정서성, 이영쇠, 이순모, 차인범은 군중에 술선하여 몽둥이로 그를 구타하였다. 차희식, 장소진, 장제덕은 돌 또는 몽둥이로 그를 난타하여 기세를 부채질하였다.¹³¹⁾ 이 과정에서 일본순사가 발사한 총에 장안면 사곡리의 李敬伯이 사망하였다.

결국 주재소는 전소되고 일본 순사는 골과열을 동반하는 열창 1개 이외에 30여개의 창상을 입고 뇌진탕을 일으킴과 동시에 두개골절 출혈을 하여 마침내 죽게

126) 장안면 어은리 면서기인 李相琦 신문조서 19권, 350쪽

127) 19권, 282쪽

128) 19권, 346~347쪽. 김현묵 신문조서

129) 19권, 350쪽. 이상기 신문조서

130) 『독립운동사자료집』 5, 화수리재판기록

131) 『독립운동사자료집』 5, 화수리재판기록

되었다.¹³²⁾

화수리 항쟁 이후 주민들은 일단 해산한 후 저녁을 먹고 남산에 모여 군대와의 회진에 대하여 상의하였다.¹³³⁾

V. 화수리 탄압

4월 4일 새벽, 어둠의 장막을 찢으며 사방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메아리쳤다. 일본군 제20사단 39여단 78연대 소속 有田(아리다: 제암리 학살의 주역) 중위가 이끄는 1개 소대병력이 발안에서 달려와 화수리를 완전 포위하고 마구 총질을 해댔다. 화수리 여수동·화수동·굴원리 주민들은 일경의 보복을 예상하고 노인들만 남기고 감감한 밤중에 원안리와 호곡리 바다 쪽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피신했다. 수비대들은 동네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자 집집마다 불을 놓고 보이는 주민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몽둥이질을 하여 탈진해 쓰러지면 냇가에 들어다 팽개쳤다. 화수리 구장 송찬호는 72군데나 칼로 난도질을 당했다. 이러한 체포와 고문이 동리마다 이어졌다. 한각리·마산동 주민들은 초죽음이 되도록 매질을 당하였고 조암리에서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자 큰집들만 골라 불을 질렀다. 일제의 탄압으로 화수리의 경우 집 19채가 소실되었으며 3명이 사망하였다.¹³⁴⁾

화수리의 피해 상황은 당시의 여러 책자에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먼저 정한경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20년에 간행된 『한국의 사정』에서는¹³⁵⁾,

화수리는 그야말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인데 일본제국의 야만적인 군대는 이 행복한 마을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기름진 논들이 뻗어 있었다.

마을 가운데에는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지주의 좋은 집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제 깨진 기와장과 부서진 벽돌더미로 변하고 말았다.(중략)

132) 『독립운동사자료집』 5, 화수리재판기록, 360~361쪽.

133) 19권, 347쪽 김현목 심문조서

134) 김선진, 위의 책, 47~55쪽.

135) 『독립운동사자료집』 6, 303~304쪽.

약 40채가 넘는 가구 중에서 18가구만이 남고 나머지는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물론 바람은 불지 않았으며 냉혈적이고 살기등등한 일본군인들이 불을 질러 마을을 폐허로 만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와 같은 증언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타버린 가옥에서는 그런 증거가 많이 발견되었다. 불탄 집과 타지 않은 가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불탄 집과 타지 않은 집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중략)

완전무결하게 황폐한 모습이었다. 단 한 장의 이불, 한 가마니의 쌀, 그리고 단 한 개의 그릇, 숟가락도 성한 것이 없었으므로 생존자들은 기아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집 잃은 불쌍한 마을 사람들은 이웃마을로 피난해서 문간에서 잠자리를 구하고 음식과 땀감을 얻어 겨우 생명을 부지했다.

다음은 이 마을이 불길에 쌓여진 당일의 상황이다.

4월 11일 새벽 마을 사람들은 집이 불타는 소리와 연기 냄새로 단잠을 깨자 마당으로 달려 나온 사람들은 경찰과 군인들이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뛰어나오자 그들은 총격을 가하고 매질을 했다

사람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소를 불문하고 산으로 도망쳤다. 부녀자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남자들은 큰 아이를 끌고 걸음을 재촉해서 산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피난처를 구하기 전에 총에 맞아 주고 무기로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암리 사건 매티 노블 기록(1919년)에서는,

수원 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기록

구호물자 분배 위원회는 W.A. 노블, 프레이 양(嬢), 마커 양, 코윈 테일러 씨로 구성되었다. 활동 지역은 수원역에서 정서(正西) 방향으로 21 마일 약 34 킬로미터)에 위치한 사강리와 인근 마을, 제암·수촌·화수리 마을의 소규모 부락과 그 사이에 흩어져 있는 농가들이다. 이들 마을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 마을간 최장 거리가 20 마일 약 32 킬로미터에 이르고 어떤 마을들은 좁은 계곡이나 급경사진 언덕과 같은 자연적인 경계선으로 갈라져 한쪽에서 다른 쪽의 마을이 완벽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마을에 불을 지른 군인들은 먼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을 뿐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특히 흩어져 있는 농가에 방화할 때 그러했다. 화수리 마을에서는 시골 부자의 큰 집이 불탔다. 그 집은 37 칸(1 칸은 사방 8 피트(약 2.4 미터) 크기로서 17 칸 규모의 2 층집이 달려 있었다. 대문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23 채의 건물이 불타고 3 명이 살해되었다. 마을에서 언덕 넘어 약 반 마일(800 미터) 떨어져 있는 절도 소실되었으며 불상을 모신 작은 건물 하나가 남았다.

라고 하여 화수리의 참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4월 9일 津村憲美 特務曹長을 책임자로 하여 하사 이하 6 명 경찰관 4 명에 古屋 수원경찰서장 이하 7명과 보병 15 명이 협력 아래 3 개반을 편성하여 오산과 장안 우정면이 있는 화수만도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하였다. 특히 4월 10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화수리를 중심으로 부근 장안·우정면내 25 개 부락을 수색하여 200명을 검거하였다.¹³⁶⁾

화수리 항쟁 후 4월 15 일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熱田 實와 순사 長村清三郎에 의해 차인범 등 33명을, 5월 13일 다시 수배자 중 구속된 17명을 합하여 모두 50 명 중 23명이 예심 및 고등법원을 거쳐 1920년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형량은 다음과 같다.¹³⁷⁾

<표 5> 장안·우정면 만세시위자 및 형량

죄 명	수 형 자	인원수	형 량
살인방화 등	이영쇠, 차희식	2명	15년형
	장소진, 장재덕, 정서성	3명	12년형
	차인범, 이순모	2명	10년형
	차병환, 김홍식, 정순영	3명	5년형
보안법 소요 등	김응식, 김명우, 김교철 김홍삼, 백순익, 김덕근 김여근, 차병혁, 인수만, 김덕삼	10명	3년형
	김형운, 윤영선, 김응오, 김중학	4명	2년6월형
	유수산	1명	1년, 벌금 20 원

136) 姜德相, 『現代史資料-朝鮮』 2, 三一運動篇, 311 쪽

137) 『독립운동사자료집』 5, 화수리 재판기록

VI. 화수리 항쟁의 역사적 성격

지금까지 화성 화수리 항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화수리 항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화수리 항쟁은 3.1운동 당시 일본 주재소를 파괴전소하고 순사를 처단한 국내 유일의 항쟁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19년 국내에서 만세운동의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측의 「조선소요사건총계일람표」에 따르면 만세지역은 총 618개 지역이며 그 중 경기도는 143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소요회수는 폭력적인 경우가 총 332건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76건으로, 비폭력의 경우 516건 가운데 경기도는 1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소요인원의 경우 총 587, 641명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169, 300명으로 제일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일본측의 피해이다. 군대의 경우 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헌병이 경우 6명 사망(평남), 8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 2명 사망(경기도), 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¹³⁸⁾ 이 가운데 경찰이 사망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지역으로 우정면 화수리와 송산면 사강리가 바로 그곳이다. 따라서 화성지역의 경우 남한 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항일운동 시위가 있던 곳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우정면 화수리의 경우 일본 순사를 처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서 주재소를 방화한 유일한 곳으로 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시 4월 25일까지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楊平, 廣州, 槐山, 咸安, 南海 등 5개 군청의 유리창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면사무소 47개소가 파괴 방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전부 파괴된 곳은 19개소이며, 방화는 5곳 기타는 서까래와 기둥만 남겼을 뿐, 전부 파괴되고 서류와 기물도 많이 소실되었다. 아울러 일부 파괴된 곳은 28개소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서의 경우 45개소인데, 경찰서 4곳, 경찰관 주재소 29, 헌병분대1, 헌병분대 분건소 1, 헌병분건 주재소 10 곳 등이다. 피해상황을 보면 전부

138)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1(1977), 359-360쪽.

파괴된 곳 16개소, 방하는 1곳이며, 기타는 건물, 기물, 서류 전부가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일부 파괴는 29개소이며, 투석 등에 의해 창유리 벽 등을 파괴하였다.¹³⁹⁾

둘째, 우정 장안 전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만세운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당시 우정 장안 지역의 경우 2천 4백여호이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약간씩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약 2500여명의 참여기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화수리 항쟁은 우정 장안의 전 주민이 참여한 대표적인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석포리, 주곡리, 수촌리 등의 주민들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다.

셋째, 화수리 항쟁은 모든 종교세력이 일치단결하여 이룬 항쟁이라는 특성 또한 갖고 있다. 석포리, 주곡리 등의 유교, 수촌리의 천도교와 기독교, 장안리의 일부 천주교 세력 등 다양한 종교세력이 연합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자신의 신앙체계보다도 항일이라는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성향으로 분류하여 3.1운동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투쟁노선에 있어서 공격적인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1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만세시위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경우 3월 29일 송산면에서도 노구찌 순사를 처단하였으며, 화수리에서도 역시 가와바다 순사를 무력으로 처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형태는 만주 러시아지역 무장 투쟁노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만세운동 참여 배경이 화수리 주재소의 탄압, 면사무소의 탄압 등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별히 이 지역이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간사지 매립에 인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일본인들에 의한 사적인 개간 및 간척 사업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점이 결국 주민들에게 큰불만으로 작용하였으며, 석포리, 수촌리 등의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 석포리, 주곡리 구술원 일대의 일본인에 의한 간척사업, 수촌리 방축동 등지의 간척사업은 주민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 시킨 것 같다.

139)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2(1977), 7~8쪽.

참고문헌

- 酒井政之助, 『水原』, 1923.
-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I 卷分冊, 東京 原書房, 1967.
- 姜德相, 『現代史資料』 朝鮮 三一運動篇 1 卷 2 卷, 1970.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서울: 국가보훈처, 1983.
-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3·1운동편 1권·2권·3권, 1977, 1978, 1979.
- 홍석창, 『수원지방 교회사 자료집』 서울: 감리교본부 교육국, 1987.
- 國學資料院, 『極秘 韓國獨立運動史資料叢書』 全12 권, 1991.
-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 권, 1994.
-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0 권, 1994.
-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1 권, 1996.
-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2 권, 1996.
- 홍석창, 『수원지방 3·1 운동사』 서울: 왕도출판사, 1981.
-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서울: 미래출판사, 1983.
-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일운동, 그날의 기록』, 2001.
-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 3·1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1995.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특집 3·1 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 정병욱, 「일제의 식민정책과 경기도」,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 성주현, 「수원지역의 3·1 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 연구회, 2001.
- 박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 운동」, 『정신문화연구』 89 호, 2002 년 겨울
- 박환·조규태, 『화성지역 3.1 운동유적지실태조사보고서』, 수원대학교 박물관, 2003.

● 투고일: 2003. 10. 10

● 심사완료일: 2003. 12. 8

● 주제어(keyword): 화수리(Hwasu-ri), 백낙열(Bak nak cheol), 차희식(Cha hee sik),
김교철(Kim kyo cheol)

<사진 1> 김교철



<사진 2> 차병환



<사진 3> 차병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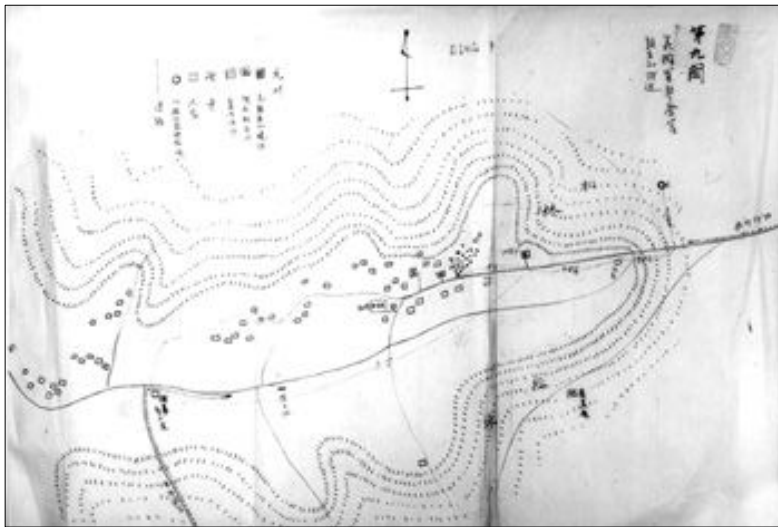
<사진 4> 우정 장안 만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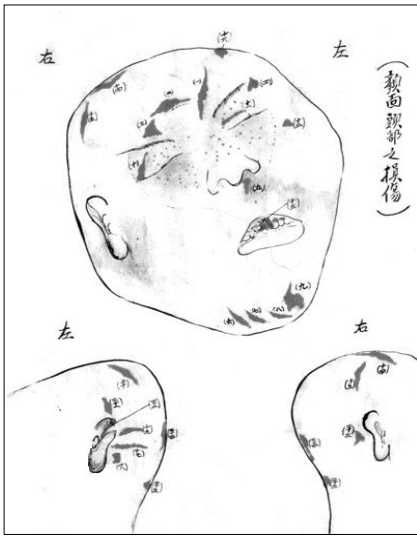
<사진 5> 화수리주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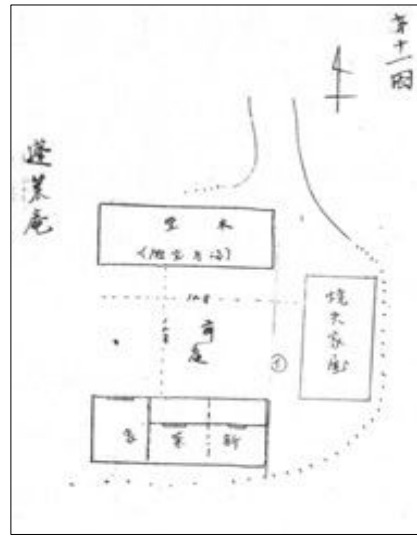
<사진 6> 화수리주계소 인근도



<사진 7> 일본순사 가와바다 검시도



<사진 8> 봉래암 평면도



<사진 9> 화수리항쟁 전경(항공촬영)

